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배경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인 21장25절의 말씀입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의미는 주변 나라들처럼 왕의 제도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분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사람이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또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법천지도 그런 무법천지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마치며 읽으실 본문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언가 끔직한 범죄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느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여인을 첩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사람은 그 첩에게 다정하게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찾아 갔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 그곳에서 며칠을 머문 후에 자신의 첩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 중간에 날이 저물어 갑니다. 여부스 곧 예루살렘을 지나 기브이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브아에는 그 레위 사람의 일행을 집으로 맞이하여 유숙하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기브아에 사는 어느 누구도 이 레위 사람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한 노인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집에서 유숙하도록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레위 사람 일행을 누구 하나 영접하지 않았던 기브아 사람들이 이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며 말합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는 이 말은 다분히 성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전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였다고 해도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때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끌어내어 그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이 첩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었다는 말씀에 비춰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이 이 여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 여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레위 사람이 그 죽은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여인의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온 이후에 처음 보는 끔직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일의 자초지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시체를 쪼개서 이스라엘 온 땅에 보낸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20장6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는 해도 차마 입에 담기에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나 행해지던 음행하는 이야기가 있고 더군다나 그 여인은 이 일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시체는 찢겨져서 이스라엘 온 땅에 보내졌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요즘 시대에 벌여졌다고 해도 아마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하고 신문에도 크게 날 만한 그런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읽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그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을 아주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읽으셨을 것입니다. 동시에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레위 사람의 행동 또한 쉽게 납득이 되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불량배들처럼 극악 무도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 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이 레위 사람의 설명과 같이 더럽고 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 인 것을 자백하며 회개를 하다가도 마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 인 것을 고백하고 있기는 하지마는 저 성경에 나오는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쏟으며 회개를 하다가도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은 다른 사람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는 마음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저 기브아 불량배들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으니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죄인이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착각일 뿐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누가 더 많은 죄 혹은 더 나쁜 죄를 지은 죄인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보다는 저 기브아 불량배 같은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죄 지을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죄를 짓고야 마는 죄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너희가 죄인 인 것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브아의 불량배와 같은 죄인이지마는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시체를 열두 덩이로 쪼개어 이스라엘 온 땅에 보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는 너무나 역겨운 것입니다. 지난 날들 동안 가졌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다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때문에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는 더럽고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너무나도 처참한 처형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그 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며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 인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첫 걸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아와 자복하고 회개하여 우리 주님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